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8 May 2015 (afternoon)
Vendredi 8 mai 2015 (après-midi)
Viernes 8 de mayo de 2015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Blank page
Page vierge
Página en blanco

본문 A



재활용품 세부 배출 방법

재활용품은 지정된 요일, 시간에 집앞에 배출합니다.

①	해당동	배출요일	배출시간	수거요일
	삼양동, 송천동, 번1동, 수유1동, 수유3동, 우이동	월, 목	18:00-24:00	화, 금
	미아동, 송중동, 삼각산동, 번2동, 번3동, 수유2동, 인수동	일, 수	18:00-24:00	월, 목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안내

- ②
- 종이류, 스티로폼류: 이물질 제거후 각각 별도로 묶어 배출
 - 비닐류 (필름류), 병류: 각각 별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
 -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투명 비닐봉지” 또는 “그물망”에 담아 배출 (전선, 벤딩끈도 재활용 가능)
 - 신발류, 의류: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 (재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신발은 짝이 맞아야 함. 재사용 불가능한 것은 “특수 규격봉투 (마대)”에 담아 배출)
 - 소형 가전제품: 집앞 배출 (아파트는 수거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 또는 동 주민센터 수거 요청
 - * 대상 품목: 냉장고, TV, 세탁기, 스탠드형 에어컨을 제외한 컴퓨터, 노트북, 게임기, 오디오세트,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휴대폰, 벽걸이형 에어컨 등 모든 소형 가전제품
 - * 냉장고, TV, 세탁기, 스탠드형 에어컨 등 1m 이상 대형 가전제품은 인터넷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 시스템) 또는 콜센터 (1599-0903)로 수거 요청 (무상 수거)

재활용 안 되는 것들

- ③
- 사기제품 (그릇, 화분 등), 고무호스, 각종 끈, 고무장갑, 레코드판, 스펀지, 고무통, 건축폐기물 (벽돌, 나무 등) 등 유독성 물질이나 불에 타지 않는 재질: “특수 규격봉투 (마대)” 사용 또는 대형 폐기물 신고 배출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1회용 용기, 컵라면 용기, 비닐 코팅된 종이 (명함, 광고지 등): “생활 쓰레기 증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기타

- ④
- 이불, 담요, 가방, 커튼: 주변 “헌옷 수거함”이나 “특수 규격봉투 (마대)”에 담아 배출
 - 폐식용유: 인근 아파트 단지내 또는 음식점,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투입 또는 수유1동 “주부환경연합회” (02-960-6967)로 연락
 - * 특수 규격봉투 (마대) 구입 및 대형 폐기물 신고처: 동 주민센터

강북구, 희망찬 강북 (2013)

본문 B

역사 도서 “왕실 문화 총서”

- ① 드라마와 영화에서 사극의 인기는 꾸준한데 젊은이들의 역사 인식 수준에 대한 우려는 높다. 역사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요즘, 젊은이들의 역사 교육을 위해 다양한 책이 출간 되고 있다. 옛 문화를 접하여 옛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는 역사책. 조선 시대의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역사 도서를 추천한다.
- ② 왕조 시대에 문화의 정수는 왕실로 모여들게 마련이다. 500년간 이어진 조선의 왕실에서 그렇게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가 꽃을 피웠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예산 지원을 받은 왕실 문화 총서가 최근 나온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둘베개)를 마지막으로 완간됐다. 2011년 <왕과 국가의 회화>를 시작으로 총 3년간 9 권에 걸친 작업이었다.
- ③ 시리즈는 크게 “조선 왕실의 일상” “조선 시대 궁중 회화” “조선 왕실의 행사” 등 세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3권씩 차례로 출간됐고, 각 권마다 책임 연구자와 4-7명의 집필진이 함께했다. 역사 전공자 외에도 복식, 음악, 음식, 무용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협업했다.
- ④ 텔레비전 사극에 무수히 배경으로 등장한 조선 왕실이지만, 일반 독자가 그 문화의 정수를 제대로 알기는 어려웠다. 왕실 문화는 고급스러우며 그만큼 정교하기 때문이다.
- ⑤ 왕실 문화 총서는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서술됐으면서도 충실한 연구 성과도 압축해 담았다. 시리즈 집필에는 1447건의 국내외 고문서, 논문, 단행본이 참고됐고, 1844장의 도판이 수록됐다. “조선왕실의 일상” 편의 책임 연구자인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실록을 정리한 수준의 대중서, 대중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그치는 역사서를 뛰어넘는다”고 자평했다.
- ⑥ 이 같은 책의 출간은 2000년대 들어 바뀌기 시작한 학계 분위기와도 관련 있다. 기존 왕조의 교체, 전쟁, 사회 변동 등을 연구하는 데 주력한 정치 경제사 중심에서 일상적 삶의 양식을 연구하는 문화사 방면으로 연구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중앙 집권적 왕정 국가의 왕실 문화는 한 시대,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기에, 왕실 문화 총서가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왕실에는 고급 전통 문화의 핵심이 담겨있다”며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국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본문 C



빅브라더

형이 맨 처음 하늘을 난 것은 내가 일곱 살 때의 일이다. [...]

5 학교에서 돌아온 형은 가방을 내던지기
 무섭게 서커스 얘기에 열을 올렸다. 사자들이 줄지어 링을 통과한다. 난쟁이가 줄
 위에서 외발자전거를 몬대. 인형처럼 예쁜 쌍둥이 자매가 맞은편 공중 그네로 새처럼
 몸을 날린다. 디테일은 매번 달라졌다. 사자들은 불이 붙은 링을 통과하기도 했고
 난쟁이는 안대로 눈을 가린 채 외발자전거를 타기도 했고 인형처럼 예쁜 쌍둥이
 자매는 공중제비를 돌며 맞은편 공중그네로 몸을 날리기도 했다. 토씨 하나 바꾸지
 않는 것도 있었다. 인간 대포알 묘기. 그것만큼은 직접 본 것처럼 말했다. 어마어마한
 10 대포야. 어른이 들어갈 정도로 커. 어른이? 형은 내가 이렇게 되묻는 것을 좋아했다.
 형은 자신이 대포를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자부심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
 대포알이 들어가면 어디선가 북소리가 울려. 둥둥둥. 번쩍이는 구슬이 주렁주렁
 달린 옷을 입은 사회자가 열부터 거꾸로 세면 북소리가 점점 빨라져. 두두두두두.
 15 마침내 열을 다 세면 뽕 소리와 함께 인간 대포알이 높이높이 날아가. 인간 대포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던 형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정수리가 찡할 정도로 달콤한 초콜릿을 한 입 베어 문 것 같은 얼굴. [...]

20 아버지는 서커스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켰다. 급기야 서커스단을 사탄의
 무리로 몰아 붙였다. 주일 아침예배 설교에서였다. 사탄의 종자들이 만든 곡마단이
 가증스런 눈속임과 천박한 볼거리로 호기심 많은 어린 양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사탄의 어릿광대들이 갖은 흑마술로 온 동네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표정으로 죄악에 대해 핏대를 올렸다. [...]

25 형과 나는 어느날 몰래 서커스를 구경하러 가게 되었다. 서커스를 구경하는 내내
 나는 가슴을 졸여야 했다. 외발자전거를 탄 난쟁이가 줄에서 떨어질까, 인형처럼 예쁜
 쌍둥이 자매가 공중 그네를 놓칠까봐 그런 건 아니었다. 객석에 신도들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했다. 마지막 공연 기념으로 관객 중에서 인간 대포알을 모시겠다는
 사회자의 말에 형이 번쩍 손을 들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형이 대포에 들어갈
 때도, 어마어마한 폭음과 함께 날아올랐을 때도, 사회자의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를 때도
 내 머릿속은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다.

30 형이 밉기도 했다. 내가 미워한 것은 죄악을 저지른 형도, 동생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끌어들이는 형도 아니었다.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미워한 것은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하늘을 난 형이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 얼마나 근사한지 주절주절 늘어놓는 형에게
 나는 울상이 되어 외쳤다. 신도들이 보면 어찌려고 그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형은 빙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겁먹을 필요없어. 아버지에게 이르지는 못할
 35 거야. 자기도 여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테니까. 나는 구원이라도 받은 듯
 홀가분해졌다. 그 해 형은 열 살이었다.

김경욱, 빅브라더 (2011)에서 각색됨

본문 D

세계 신문의 화두는 페이월과 모바일

페이월(온라인뉴스 유료화)과 모바일. 타이 방콕에서 열린 세계 편집인 포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이다. 신문 구독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급이 늘고 있는 모바일에서 유료 독자를 확보하거나 무료 독자라도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에서도 대다수 인쇄 신문의 유료 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신 인터넷과 모바일로 뉴스 환경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언론사들이 생존 전략을 온라인에서 유료화 모델로 찾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번 포럼에서 먼저 발제를 한 캐나다의 <글로브앤메일>도 온라인뉴스 유료화를 시작했다. 모든 뉴스를 유료화한건 아니고 자신들이 특화한 정치와 경제 기사들이 주요 대상이다. 실제로 정치와 경제 뉴스 독자들이 유료 온라인 독자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고 <글로브앤메일>은 밝혔다. 처음에는 한 달에 99 캐나다 센트만 내면 기사를 온라인에서 무제한으로 볼수 있는 혜택을 내걸어 온라인 유료 독자를 확보 했으며, 현재는 기사를 무제한으로 읽으려면 한 달에 19.99 캐나다 달러를 내야 한다.

덴마크 신문 <월란스포스텐>도 속보와 짧은 기사들은 무료로 나누고 질높은 기사들을 유료화하는 전략을 지난 해부터 택했다. 이 신문의 디지털국장은 “유료화 대상이 되는 프리미엄 기사들은 전체 기사의 25% 정도이고 아침 6시와 정오 그리고 저녁 7시에 주로 내보낸다”고 했다.

25

노르웨이의 <페드렐란스벤넨>은 1995년 신문 구독자 수가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들자 지난해 5월 에 유료화로 전환했다. 이후 전체 구독자 수가 95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도 온라인뉴스 유료화 이후 제작 공정을 신문 제작보다는 온라인뉴스 소비 시간이 많은 시간대에 맞춰 저녁과 주말시간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30

이들 신문의 온라인뉴스 유료화가 아직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세계에서 온라인뉴스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곳은 <파이낸셜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같은 일부 유력한 경제지에 불과하다.

35

모든 신문들의 온라인 전략이 유료화인 것도 아니다. 캐나다 프랑스어 신문인 <라프레스>는 지난 4월 40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해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라프레스플류스”를 내놓았다. “라프레스플류스”는 특히 아이패드에게 맞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기사를 업데이트한다. 콘텐츠는 온라인 환경에 맞게 기사와 사진, 그래픽, 동영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추구한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라프레스플류스”는 공짜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뉴스 구독도 무료다. <라프레스>는 “디지털환경에서 정보에 공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40

45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 <엘 파이스>도 지난 해 전체 인력의 3분의 1을 구조 조정 한 이후, 온라인에 집중하기로 했다. 남미와 미국등을 합쳐서 전세계 스페인어 사용자 5억 인구를 겨냥한다는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의 <스타>도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혼잡과 넓은 국토 탓에 신문이 제시간에 배달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바일에서 뉴스를 소비시키는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버전의 신문을 모바일로 유통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50

이 신문들은 온라인뉴스 유료화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신문의 미래를 온라인, 그중에서도 모바일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같다.

55

한국 신문들도 전면적인 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이 아직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양질의 신문 기사나 인기 있는 코너를 유료화하는 등 점차적으로 국내 상황에 맞는 유료화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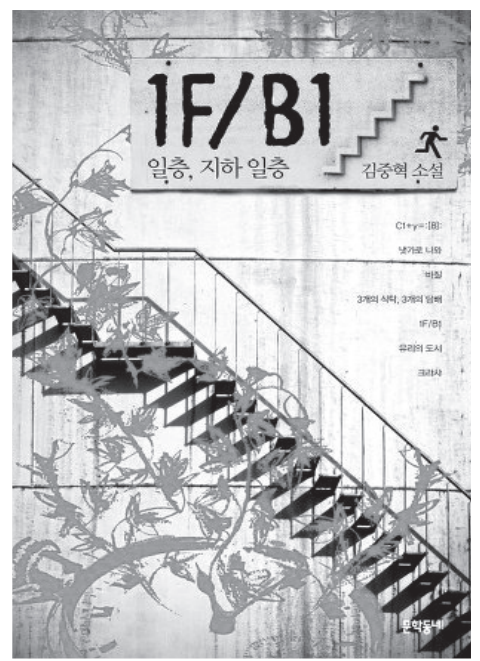
조기원, 한겨레 (2013)에서 각색됨

본문 E

[작가를 만나다]

소설가 김중혁

① 세계적으로 도시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만 느껴오던 도시를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단편집 <1F/B1 일층, 지하 일층>에서 김중혁 작가는 지하에서 우주까지, 골목에서 빌딩숲까지 도시 곳곳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소설 속 도시는 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미래 도시가 아니라, 도시 계획으로는 만들 수 없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는 곳이고, 예상치 못한 빈터가 나타나는 곳이고, 낯선 바다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빈집 담벼락에 낙서가 남아 있는 곳이며, 숨은 틈새 공간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또 이야기의 전설이 만들어지는 냇가가 있는 곳이고, 도심 속 주택의 좁은 벽을 돌아나가면 괴식물들이 덩굴을 이루고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독특한 시각을 가진 김중혁 작가와의 만남 속으로 출발합니다.



② **Q: 이번 단편집은 도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약기, 그전에는 물건. 테마로 단편집을 묶는 이유가 있나요?**

③ 제가 티가 나게 묶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작가들이 한 시기에 관통하는 개인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묶을 거면 티나게 묶자” 한거죠. 전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써요. 이 단편집 전에 엇박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쓰다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런던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쓴 작품이 <세 개의 식탁, 세 개의 담배>인데 “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 ④ **Q: 진지하게 뭔가를 질문하고 싶을 땐 단편, 뺑치고 싶을 땐 장편, 수다 떨고 싶을 땐 산문, 웃기고 싶을 땐 만화를 그린다던데 이번엔 단편집에서는 도시에 관해 진지하게 말하고 싶었나요?**
- ⑤ 단편은 저한테 제일 진지한 질문들이죠.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는데 이 도시는 희한한 도시 같아요. 95년부터 서울에서 지냈는데 도시의 변화도 엄청 빠르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도 엄청 빨라요. 뭔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서너 개의 도시가 얹혀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어요. 이런 도시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고 싶었고요. 그게 저한테는 공간에 대한 문제고, 빌딩 안에 사람들의 문제고, 자연의 문제예요. 또 지금 도시들이 남겨야 할 것들은 없애고 없애야 할 것들은 생기는 걸 보면서 그에 대한 가치판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쓰고 싶었어요.
- ⑥ **Q: 유쾌한 상상력으로 유명한데 영감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 ⑦ 상상력이 많다고보다는 뻘뻘함의 문제인거 같아요. 다른 작가들을 보면 자료 조사를 많이 해요. 저도 자료 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보다는 “하나의 기호를 만들자” 해서 이름이나 이야기나 아무렇게나 지어요. 지어놓고 정말 있는 것처럼 수습을 하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해나가는 과정이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또 중요하구요. 수천가지의 생각과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뽑아 살을 붙이는데 또 그 안의 사람들의 감정은 실제예요. 그런 걸 엮는 게 재미있어요. 상상력과 사실이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는 거죠.
- ⑧ 김중혁 작가와 함께한 90 [- X -]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 52 -] 하고 즐거운 시간 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책을 쓰고 있느냐고 묻자 김중혁 작가는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고 [- 53 -] 귀뜸해 주었는데요. 벌써부터 그의 책이 나올 날이 기다려집니다. 책에는 [- 54 -] 를 하고 지저분하게 봐야 진짜 내 책인 것 같다고 말하는 김중혁 작가, 유쾌한 소년감성을 [- 55 -] 담은 그의 책과 함께라면 오늘 하루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다솜, 문화부 놀이터 (2012)에서 각색됨